

문대통령 지지도 하락세...野 '협조' 보다 '공격'

靑, 판문점선언 비준안 이번주 제출...한국당 '수용 불가' 여야, 소득주도성장·부동산 정책 등 대정부 질문 충돌 예고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연일 터져 나오는 정국 이슈에 점예한 대기만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협치'와 '일하는 국회'를 외치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우선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야 갈등의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비준동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연일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외치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지금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민의 마음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과 다름없다"면서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의 문제를 논의하는 유보적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협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둘러싼 갈등 외에도 여야 협치를 위한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하락세가 야당으로 하

여금 대어 공세 수위를 더욱 높게 하는 발미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엇박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잇따른 논란성 발언 등 야권으로서는 공격할 소재가 널린 상황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성향 야당 입장에서는 '협조'보다 '공격'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을 유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장 여야는 이번 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대북이슈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는 동시에 줄줄이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권이 1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 정례회를 추진 중이고, 한국당은 여야 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하는 등 여야 모두 민생경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달아오르는 정국에서도 협치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이번주부터 11명 릴레이 청문회

10일~19일...여 "전원 통과" vs 한국당 "의원불패 깰 것"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펼쳐지는 잇단 인사청문회가 정기국회 초반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다. 청문 대상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 등 무려 11명에 이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10일)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1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12일)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9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추천 몫 헌법재

판관 후보자도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청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이념 성향 및 도덕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버리고 있다. 유남석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진보성향 인사이며, 이석태 후보자는 김광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고, 김기영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여야는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 전원 통과를 목표로 엄호에 나서는 동시에 '정책 검증'에 주력하겠지만, 야당은 '숨겨진 검증'을 앞세워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현역 의원인 장관 후보자가 100% 청문회를 통과해 온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각오도 밝힌 상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노회찬 뜻' 이어가겠습니다 9일 오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치러진 고 노회찬 전 의원의 49재 추모행사에서 부인인 김지선 씨,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심상정의원 등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 노회찬' 키운다

정의당, 재단 설립절차 착수

정의당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의 49재를 맞아 가장 '노회찬재단' 설립안을 공개했다.

이정미 대표와 권영길·심상정 전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 18인은 이날 노 전 의원 묘소가 있는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모여 노회찬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정광필 전 이화학교 교장은 제안문을 통해 "우리는 노회찬이 살아온, 고되지만 투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잘 알기에 그의 죽음이 너무 애석하다"며 "노회찬재단을 설립해 노회찬이 했던 정치를 '노회찬 정치'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단 사업방향으로 "노

회찬의 말과 글, 발자취를 기록하고 펼쳐 내 좋은 정치의 교본이 되게 하겠다. 노회찬의 꿈과 삶을 이어갈 제2, 제3의 노회찬을 양성하고 지원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을 문화적이고 자유로운 나라, 사회연대의 나라,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토론의 장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단 설립 제안에는 김명환 민주노동당 위원장, 방송인 김미화씨, 김영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영화감독 박찬욱·변영주 씨, 백승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시민 작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홍순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등(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정동영 "집값 대책, 5당 머리 맞대자"

대표 긴급 연석회의 제안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9일 집값 급등 대책 마련을 위한 5당 대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대 맞벌이 부부가 1주일 사이 집값이 1억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생 집 못 사겠다며 평평 울었다는데 이런 절망감은 이 시대 정치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이러한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매달 초 월요일(문화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가) 초월회로 만나기로 했다"며 "집값에 관한 입장이 다르므로 그때를 기다리기 전에 (5당 대표가 모여)

토의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합의하면 집값을 당장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집값 잡기 대책으로 분양권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3종 세트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값 폭등이 참여정부 때의 집값 상승 높이를 뛰어넘고 있다"며 "기울기가 더 가파른 만큼 근본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권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3종 세트의 근본 처방은 대세가 되고 있다"며 "공급확대 전에 고장 난 시스템을 고치고, 3종세트 개혁으로 조지한 뒤 공급확대로 가면 맞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경 기자 jkpark@

여야 "메르스 확산 방지" 한목소리

여야는 3년 만에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모든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메르스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2015년 '메르스 쇼크'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 의료계의 미흡한 대처로

감염자 186명 중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6000여명이 격리됐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보건당국이 발표한 21명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고, 동승 항공탑승자 등 440여명의 단순접촉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검역당국은 메르스 확산자의 공항 이동 경로를 CCTV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돌아오는 홍준표

SNS에 "15일 귀국"

6·13 지방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8일 "또다시 갈등의 대한민국으로 들어간다"며 귀국 각오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은 나머지 인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6년 만에 미국에서 휴식과 힐

링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두 달은 독서와 충전,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내 나라가 부국강병을 한 나라가 되고, 선진강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글을 맺었다.

홍 전 대표는 추석 성묘를 위해 오는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홍 전 대표 측은 홍 전 대표가 귀국 후 공부와 연구를 위해 일본 등으로 다시 출국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위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2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0
		한국어교육학과(M.Ed.)	20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